

완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48호

2016년 9월호 와푸, 널 기다렸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2016 완주와일드푸드축제(이하 와푸)'가 9월23일부터 25일까지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와푸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해진 프로그램과 와일드한 읍면별 먹거리, 늘어난 편의시설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월호 완두콩은 3일간의 축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관련기사 2~7면

사진설명 : 비봉면 원내월마을 이장 조영옥씨와 이금주씨가 오색꽃전을 만들어 들어보이고 있다.





와푸, 널 기다렸어 비봉 원내월 마을 주민들 오색꽃전 준비 구슬땀

“내손으로 키운 걸로 잘 먹고 즐기니 재미져”







야트막한 산이 병풍처럼 드리운 아늑한 마을 원내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이 마을 이장 조영옥씨 집 마당을 가득 채웠다. 마당 가운데는 장작을 지펴놓은 가마솥뚜껑 위에서 다섯 가지 색 꽃전이 지글대고 있었다. 올 완주와일드푸드축제장에 내놓을 야심작, 오색꽃전 리허설이 열린 것이다.

이날 리허설을 위해 조씨를 비롯해 이금주 부녀회장과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회장은 “영옥씨가 워낙에 솜씨가 좋다. 그래서 우리도 와서 함께 도우며 축제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전 모싯잎 송편, 인기 점점 시들어 조영옥씨 옛 어머니 손맛 문득 떠올라 치자, 모싯잎, 맨드라미, 쑥, 대추 넣어 주민들 모여 찹쌀 반죽부터 손발 척척

찹쌀을 반죽하고 꽃잎을 다듬는 주민들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졌다. 한쪽에선 복분자 꽃전을 맛보며 품평이 한창이다. 원액이 너무 진하니 물을 좀 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씨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들과 함께 오색꽃전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오색꽃전은 치자와 모싯잎, 맨드라미, 쑥, 대추 등 모두 다섯 가지 재료로 만든다.

“작년에 처음 선보였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와서 맛보고 체험해본 사람들마다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 왜 이렇게 저렴하냐고 물어요. 그 뜨거운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올해도 잘 준비해보기 위해 오늘 손발을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원내월마을은 와일드푸드축제장에서 모싯잎 송편을 팔았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첫 해와 두 번째 해에는 모싯잎 송편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반응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문득 옛날 어머니가 해준 오색꽃전이 떠올라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뜻밖에 호응을 받은 것이죠.”

사람이 겁날 정도로 많았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번 부치는데 다섯 명씩 줄을 섰다. 마을 아이들은 할머니를 돕느라 축제를 즐길 새도 없었다.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체험용 가마솥뚜껑을 두 군데에 설치할 계획이다.

원내월마을 오색꽃전은 끊임없이 진화중이다. 재료는 가능한 한 집근처에서 나는 것을 쓰기로 했다. 쑥은 집 뒤 논과 밭두렁에서 뜯고 찹쌀, 치자, 복분자, 대추도 집에서 직접 키워 쓴다. 또 작년에는 순 찹쌀만 썼는데 너무 늘어져서 먹기에 불편했다는 얘기가 종종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는 멥쌀을 좀 넣었다.

원내월마을은 수수부꾸미와 식혜도 이번 축제에 내놓는다. 주민들은 식혜용 엿기름을 길러 진즉에 빻아놓았고 영옥씨는 수수부꾸미를 위해 직접 수수를 심었다. 진안까지 가서 얻어온 실한 놈이다. “작년에는 수수를 사다가 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직접 심었는데 그런대로 농사가 된 것 같아요. 수확해서 말리고 있어요. 조만간 털어서 방아를 찧어야겠죠.”

리허설에 참여한 마을주민들은 “올해도 우리가 만든 오색꽃전이 체험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그 이상 기쁠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와일드푸드축제가 앞으로 20여 일 남았으니 함께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봉 원내월마을 주민들이 와일드푸드축제에서 선보일 오색꽃전과 수수부꾸미를 만들어 보고 있다.







봄부터 준비한 와프음식 기대하세요

각 읍면 대표음식 발표회

"우리 동네 요리가 최고여!"

지난 8월 24일 완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와일드푸드 축제 개막 한 달여를 앞두고 축제 음식을 미리 선보이는 '2016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음식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주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음식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 전 마지막 기회로 수개월간 각 읍면별에서 준비하고 있는 축제 음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

축제 음식들은 모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조리된 음식으로,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음식과 독특한 와일드 음식 등 다양한 메뉴가 출품됐다.

특히 마을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들이 눈길을 끌었다. 동상면은 직접 만든 순두부를 활용한 순두부찌개, 동상에서 난 콩과 취나물, 고사리 등을 활용한 산골비빔밥으로 차려진 밥상을 선보였다. 특히 빵 속에 볶은 고기, 양배추 등 채소, 소스를 섞어 샌드위치 형식으로 만든 짚신빵과 동상에서 난 곶감을 넣어 찐 곶감인절미도 있었다. 길영숙 동상새마을부녀회장은 "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는데 벌써 가을이 돌아왔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건강한 동상의 맛을 맛보러 많이들 오시면 좋겠다"며 "동상면 파이팅"을 외쳤다.

들녘이 많은 지역 특색을 이용해 민들레를 활용한 음식을 선보이는 고산면도 인기 만점.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메뉴를 기반으로 더욱 정성들여 준비했다. 진금용 고산면부녀회장은 고산면에서 반드시 맛보아야할 메뉴로 '민들레 비빔밥'을 뽑았다.

진 회장은 "우리 비빔밥은 고기를 넣지 않고 채소와 민들레를 넣어 깔끔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정성을 담았기에 더욱 맛있다"며 "쌉싸름한 민들레 맛도 보며 건강한 음식 맛보고 가시면 좋겠다"고 웃었다.

2016 와푸 축제를 맞아 새롭게 개발된 신메뉴들도 눈길을 끌었다. 삼례읍의 삼채납작만두볶음, 봉동읍의 메밀묵무침, 용진읍의 표고와 양파를 이용해 만든 표고볼과 표고불고기, 상관면의 뽕잎다슬기칼국수, 이서면의 특산품인 배를 이용해 만든 배식혜, 소양면의 두부탕수, 구이면의 삼채볶음밥과 간장떡볶이, 운주면의 인삼골뱅이무침과 인삼주꾸미볶음 등이 그것이다.

완주군청 관광체육과 홍성희 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석대 산학협력단 컨설팅을 통해 읍면별 축제음식을 결정했다. 대표 밥상의 품질을 높여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모든 이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와일드푸드축제 음식발표회에서 주민들이 출품음식을 맛보고 있다.

이건 꼭 잡숴봐요 !

2016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먹어봐야 할 먹거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

동상 순두부찌개

9월로 접어들면서 바람이 한결 서늘해졌다.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그릇 생각난다면 동상면의 순두부찌개를 추천한다. 직접 만든 순두부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순두부보다 더욱 고소하다.

운주 인삼골뱅이무침&인삼주꾸미볶음

올해 처음 선을 보이는 운주면의 인삼골뱅이무침과 인삼주꾸미볶음. 인삼의 쌉싸름한 맛과 쫄깃한 골뱅이 혹은 주꾸미가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이다. 축제장에서 가벼운 술자리에 딱 어울릴 안주로 추천!



삼례 삼채납작만두볶음&동동주

몸에 좋은 삼채를 넣어 만든 납작만두 볶음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다. 삼채를 넣어 직접 빚은 만두를 찐 다음 다시 튀겨 볶은 채소와 함께 제공한다. 세 가지 맛이 난다해서 이름 지어진 삼채는 특유의 쌉싸름한 향이 있지만 강하지 않아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삼례읍 부녀회에서 직접 담아 일반 동동주보다 진하고 솔잎을 넣어 향이 나는 솔잎동동주도 추천.

용진 표고볼

표고와 양파를 이용해 만든 표고볼이다. 미트볼처럼 먹기도 간편해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메뉴.

이서 배식혜

이서의 품질 좋은 배를 넣어 만들었으니 식혜의 단맛이 훨씬 강하고 부드러워졌다. 식사 후 입가심으로 이서의 배식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지.

동상 짚신빵

빵 속에 볶은 고기와 양배추 등의 채소를 넣어 소스를 섞었다. 샌드위치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로 추천.



와푸, 널 기다렸어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새벽마다 발길 정성 쏟은 만큼 잘 자라서 뿌듯

"축제 때 체험객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게 논 관리 잘 해야죠."
벼가 고개를 숙였다.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와일드푸드축제가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판식씨(68 · 고산면 오산리 동봉마을 이장)도 덩달아 달력을 세기 시작했다. 와푸 축제가 시작되면 낱알이 영글어가는 지금의 초록 논이 메뚜기 · 우렁 · 미꾸라지 잡기를 하는 체험놀이터가 되기 때문이다.



와일드푸드축제 메뚜기잡기 체험장으로 쓰일 벼논에서 유판식씨가 논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메뚜기·미꾸라지잡기체험 벼논관리 유판식씨

와푸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메뚜기 · 우렁 · 미꾸라지 잡기 체험'은 매해 축제 때마다 체험객들이 몰리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잡기 체험 뿐 아니라 수확한 벼를 쌀로 만드는 정미 체험도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유씨는 지난 5월 모내기를 한 후 매일 같이 논을 관리해왔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오로지 퇴비만 사용한 친환경 논으로, 밥맛 좋기로 유명한 신동진벼를 키우는 곳이다. 이날도 그는 새벽 5시부터 논에 나와 한 바퀴 점검을 했다. 피를 뽑고 논두렁에 난 풀을 깎았다. 그는 "논에 제초제를 쓰지 않으니까 보름에 한 번 정도는 풀을 깎는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매일 눈만 뜨면 논에 나오는데 나오면 풀 하나라도 뽑을 일이 꼭 있다"고 웃었다.



500여 평 정도 되는 규모의 논은 축제 기간 메뚜기 체험장, 미꾸라지 체험장 등으로 활용된다. 유씨는 전체적인 논두렁 제초는 물론 미꾸라지 체험장의 경우, 체험을 위해 물이 마루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 그는 "메뚜기 체험장은 체험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논바닥을 잘 말려야한다. 지난해에는 축제 전에 비가 내려서 양수기로 물을 빼는 일도 있었다. 아무래도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찾다보니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그가 정성들여 관리한 논에서 와푸 축제장을 찾은 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처음에는 메뚜기나 미꾸라지가 낯설어 겁을 내던 아이들도 이내 재미를 느끼고 즐거워한다고. 그는 "제가 어릴 적에는 메뚜기를 잡아 구워먹고 했었다. 요새 도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와푸 축제 때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며 "메뚜기,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벼는 누가 키웠냐' 고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다. 아는 사람들한테 '여기 농사 내가 지었다' 고 먼저 말하기도 한다"고 웃었다.

여전히 축제날까지 할 일이 많다는 유씨. 체험객들을 위한 길도 내야하고, 추석 즈음해서 마지막 제초작업도 해야 한다. 그는 "축제날 저도 나와서 체험객들에게 정미하는 방법도 알려줄 생각이다.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끝



와일드푸드축제에서 애벌레 체험을 선보일 한윤호 씨가 굼벵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양간식 굼벵이도 영양소 섭취

■메뚜기·개구리 키우는 임병목씨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인 메뚜기·개구리 잡기 체험. 축제장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와 개구리를 정신없이 잡아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궁금증을 가져봤을 터다. 이 많은 메뚜기와 개구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그 궁금증을 메뚜기와 개구리를 키우는 임병목씨(구이면)에게 물어봤다.

메뚜기 사육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메뚜기는 자연적인 산란을 많이 하는데 먹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방식이다. 먹이는 벼나 옥수수 종류의 풀을 좋아하고, 먹이가 없으면 떼로 이동을 하는 자연적 습성이 있다 보니 먹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줘야 한다. 현재 1,500여 평의 논에서 메뚜기를 사육하고 있다. 벼가 있으면 메뚜기 포획이 어렵기 때문에 먹이로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심는다.

개구리 증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지난 2005년부터 개구리 양식을 하고 있는데 증식장에서 인공적으로 증식을 시키는 방식이다. 개구리는 환경 보호 종이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급 및 양식을 하지 못한다. 개구리 성장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

올해 와일드푸드 축제장에서도 메뚜기와 개구리를 볼 수 있나

이번 축제에 제가 제공하는 메뚜기는 1만 5,000마리 가량, 개구리는 2,000마리 정도. 축제장을 찾은 체험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한마디

메뚜기나 개구리는 과거 먹거리가 부족할 때 즐겨 찾던 간식거리이기도 했다. 이번 와푸 축제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색적인 체험도 즐기고 와일드한 맛도 보고 가시길.



■애벌레체험 곤충사육하는 (유)삼락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곤충 맛 좀 보실래요?"

지난 1일 봉동읍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유)삼락. 사무실에 들어서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발효실에는 굼벵이 흰점박이꽃무지의 먹이가 되는 발효시킨 톱밥이 있다. 곤충 사육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이. 이들은 깨끗한 참나무 생톱밥에 밀기울과 같은 영양소를 넣어 배합시킨 먹이를 먹인다. 이어 제1사육실로 들어가자 발효된 톱밥 안에서 굼벵이가 자라고 있다. 알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성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다 성장한 굼벵이는 이후 건조돼 영양소가 뛰어난 먹을거리로 만들어진다.

와일드푸드 축제장을 한번이라도 찾은 사람이라면 알 테다. 와일드푸드 축제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와일드, 바로 야생의 맛과 멋이라는 것을. 그 중심에는 굼벵이 쿠키, 개구리 튀김, 메뚜기 볶음, 귀뚜라미 전병 등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과 애벌레 체험, 굼벵이 체험 등 야생의 체험이 있는데, 삼락은 바로 그 곤충 체험 및 먹거리를 선보이는 곳이다 .

삼락은 지난해 축제에서 '고소애 쿠키(밀웜)'라는 이름으로 갈색거저리를 건조시켜 관람객들에게 선을 보였다. 애벌레 모양의 쿠키로 모양은 다소 친숙하진 않지만 그 맛만큼은 먹어본 사람들의 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였다. 누군가는 고소애를 우유에 갈아 먹기도 한다고.

이들은 올해 축제에서 완주지역공동체 마더쿠키의 '굼벵이 쿠키'를 통해 굼벵이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락 한윤호 이사는 "동의보감 등에서 굼벵이 효능에 대해 알 수 있다. 간의 독성을 해독하고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곤충 관련 부스를 통해 청금강(앵무새), 거북이, 수생곤충 등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이사는 "과거에는 식용 곤충에 대한 편견이 컸는데 최근에는 의식의 전환이 많이 이뤄지는 것 같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식용 곤충 체험도 많다"며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부모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곤충을 주제로 하는 축제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와푸 축제는 곤충을 주제로 한 먹거리와 체험이 결합된 축제다. 이번 축제에서도 관람객들이 즐겁게 즐기다 가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와푸, 널 기다렸어 물고기 통구이 선보이는 창포마을

내가 잡은 물고기를 통째로 … "더 고소해진 맛"



"이번에 구워보니 2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됐어요. 체험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9일 고산 창포마을. 칼집 낸 송어와 향어를 나무장작을 땐 '통구이 통'에서 굽고 있다. 한 30분 가량을 장작불에 구워내니 그을음 하나 없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다.

두 개의 연통과 최대 72마리를 한꺼번에 구울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이 '통구이 통'은 지난 2년여간 고산 창포마을의 김동원 전 창포마을위원장(44)이 만들어 온 것이다. 동원씨는 와일드푸드축제가 가까워짐에 따라 체험객들을 맞이할 마무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와푸 축제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화덕구이 체험. 직접 잡은 물고기를 꼬챙이에 끼워 화덕에 앉아 구워먹는 체험이다. 올해 와푸에서는 이 물고기구이 체험이 동원씨가 개발한 통구이 통으로 더욱 다양해질 예정이다.

동원씨는 화천 산천어축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거꾸로 타는 난로' 모델을 기본으로 통구이 통을 작업했다. 조금의 연료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한 결과다. 그는 "화천 산천어축제의 통구이 시스템을 보고 우리도 만들어 체험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자문을 얻어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제작했다"고 말했다.

그가 통구이 통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최초의 목적은 창포마을을 찾는 체험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화덕을 만들어본 기술자는 아니지만 과거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교육을 옆에서 보면서 흉내 내 시도하게 됐다. 올해 정월대보름 때 마을에서 열린 완주만경강축제에서 처음으로 고구마와 밤을 구워먹는 체험을 했었다"고.

곧 다가올 와푸 축제를 앞두고 그는 요새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 아침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

동완씨는 "연통 크기와 나무 넣는 아궁이 비율을 맞추는 일이 어려웠다. 지금도 물고기가 더 빨리 익을 수 있도록 구멍을 양쪽에서 막아 열 손실을 막는 작업과 연통 연장 작업 및 도색 작업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험객들의 안전. 그는 "최우선으로 체험객들의 안전을 위한 설비를 꼼꼼하게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와푸 축제는 우리 지역의 축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할 수 있는 건 그 마을 사람들이 맡아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와푸 축제에서 통구이 통을 많은 체험객들이 이용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포마을 주민이 올해 와일드푸드축제장에 서보일 물고기통구이통으로 숭어를 통째로 굽고 있다(위쪽). 고산창포마을 주민들이 이번 와일드푸드축제장에서 체험객들이 잡은 물고기를 통째로 굽기 위해 개발한 구이통에 구운 숭어를 살펴보고 있다.(오른쪽)



와푸, 널 기다렸어

축제장 그늘 만드는 아름지기 목조사업단

볏짚 그늘막 시원하게 즐기세요



완주 아름지기 목조사업단 직원들이 와일드푸드 축제장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다.

9월의 바람은 서늘하지만 햇볕은 맹렬하게 뜨겁다. 와일드푸드 축제 날도 마찬가지. 다행히 축제 현장에는 가을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도록 설치된 그늘막이 있어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각종 먹을거리 부스와 물고기 손질터 인근에 자리 잡은 와일드 체험장 및 화덕 구이 장소가 바로 그곳이다.

지금은 나무 뼈대만 드러난 이곳에서 축제장의 그늘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나와 땀을 흘리고 있는 아름지기 목조사업단이 그들이다.

그들은 이번 축제를 위해 길이 45m, 너비 8m의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그늘막은 기존 축제와 달리 볏짚을 올릴 예정이라고. 와푸 축제의 특징인 볏짚 미끄럼틀처럼 올해 그늘막도 볏짚 그늘막이 콘셉트가 됐다.

이준호(55) 대표는 "지난해에는 갈대를 지붕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거적'이라는 촘촘한 볏짚을 이용한 지붕을 만들 예정이다. 조밀하게 짜여 와푸 축제의 느낌과도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와푸 축제를 아직 참가해본 적 없는 팀원은 직접 축제를 준비하는 일원이 되면서 와푸 축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유영배(39)씨는 "지역의 큰 축제장에서 함께 작업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아직 와푸 축제를 즐겨본 적이 없는데 이번 축제 때는 가족들과 함께 올 생각"이라고 웃었다.

2011년부터 결성된 팀으로 팀워크 하나만큼은 어디 빠지지 않는다. 이준용(33)씨는 "몇 년 동안 함께 작업을 한 사람들이다보니 전혀 현장에서 문제가 없다. 이번 와푸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저희가 작업한 그늘막 아래에서 즐거운 축제를 즐기다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

올해 와푸축제 뭐가 달라졌나

■ 시랑천 프로그램 다양화

기존에는 물고기 잡기 체험만 이뤄졌던 시랑천이지만 올해에는 상류에 어린이들이 워터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하류에는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수상 와일드 줄다리기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직원들이 9월 3일 와일드푸드축제 화덕구이용 화덕을 만들고 있다.

■ 물고기 구이(화덕) 공간도 확장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구이 공간에서 시랑천변까지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물고기 구이 방식도 기존보다 확대 됐다. 그동안 화덕을 이용한 생선구이 방식이 연기가 많이 난다는 일부 의견들을 수용해 고산면 창포마을 김동원 전 마을위원장이 개발한 '통구이 통'도 선보인다. 한 번에 최대 72마리를 구울 수 있는 특수제작 된 난로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물고기 구이를 즐길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구이 형식으로만 잡은 물고기를 즐겼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매운탕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 먹거리 체험 풍부

계란 속을 모두 꺼낸 뒤 숯불에 밥을 짓는 체험인 '호~호 계란껍질밥 체험'이 눈길을 끈다. 완주 8미 음식에 속하는 '묵은지 닭볶음탕'과 '다슬기탕'을 맛볼 수 있는 '8미 음식점'도 운영될 예정이다.

■ 추억의 7080 교실

기존에는 추억의 7080 교실을 재현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에는 개그콘서트 버전으로 선생님과 학생 5명 정도가 팀을 구성해 조회시간, 종례시간을 운영, 체험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 야간 프로그램도 강화

고고장 콘셉트의 대규모 쇼 프로그램인 '시끌벅적 와일드 파티'를 준비해 전문 DJ와 함께하는 새로운 파티를 기획하고 있고, 감등 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의 야간 등도 설치된다.

■ 휴식 공간 및 접근성 보완

평상과 그늘막을 축제장 곳곳에 설치해 쉼터 공간을 확대 운영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과 와일드 깃발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시랑천 주변 주차장 역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공



손녀딸 같은 베트남 며느리가 해준 쌀국수 내 입맛에 딱이네

완주군여성단체협 · 비사모, 이색음식봉사 호응

"처음 먹어보는 베트남 음식인데 내 입맛에 딱이네."

1일 저녁식사를 앞둔 비봉면 원이전마을 경로회관이 떠들썩하다. 베트남 다문화이주여성들이 준비한 베트남 쌀국수가 이날 마을 어르신들의 저녁식사 메뉴. 늘 먹던 잔치국수하고 조금은 다른 형태의 국수에 할머니들이 호기심을 보인다. 쌀국수를 먹기 전 음식을 준비한 베트남 여성이 "저처럼 레몬을 짜서 먹으면 국물이 더 시원해져요. 고수는 드실 수 있으신 분만 넣으시고 취향에 따라 핫소스를 뿌려 드시면 더 맛있어요"라며 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원이전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쌀국수는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와 비사모(비봉을 사랑하는 모임의 줄임말)가 함께 하는 '비봉인아시아 이색음식봉사' 활동의 일환이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완주지역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문화여성들이 직접 자국 음식을 요리해 마을 어르신 및 아이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음식을 통해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인 것이다.

이날 준비된 쌀국수는 다문화이주여성 딘티투(29 · 베트남)씨가 한껏 솜씨를 부렸다. 전날 소뼈를 10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에 소고기, 파, 부추, 양파, 고추 등을 넣어 베트남 현지의 느낌을 듬뿍 담았다.

딘티투씨는 "원래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집에서는 베트남 요리를 잘 안하게 된다. 이런 기회가 있으니 오랜만에 베트남 요리도 하는 것 같다"며 "준비하고 요리하는 게 간단하진 않지만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처음 베트남 음식을 드신 할머니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한 그릇을 다 비우신 서귀여(88) 할머니는 "고기가 들어가고 면이 납작납작해서 내가 만든 잔치국수보다 훨씬 맛있다. 내 입맛에 딱 맞다"며 "베트남 음식은 처음인데 이제 어디 가서 베트남 음식 먹어봤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옥수(75)할머니도 "베트남은 안 가봤는데 이 국수 먹으니까 베트남 안가도 될 거 같다"며 웃었다.

이 뿐 아니다. 이 마을에 사는 다문화여성이 다른 마을의 다문화여성과 교류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파이소캉(33 · 캄보디아)씨는 "베트남 쌀국수는 캄보디아 쌀국수하고도 다른 맛인 것 같다. 우리는 미나리 같은 '찌'라는 채소를 넣어 먹고, 생선을 기반으로 한 육수를 내는데 베트남 쌀국수는 고기 육수다 보니 맛이 다르다"며 "다른 마을에 있는 외국인 친구를 보니 반갑다"고 웃었다. 앞으로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는 12월까지 '비봉인아시아 이색음식봉사'를 통해 더 많은 이웃들을 만날 예정이다.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베트남 며느리들이 비봉면 원이전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베트남쌀국수를 준비했다.

안춘자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어르신들이 외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고 오히려 호기심에 좋아하신다. 입맛에 맞도록 한국 재료를 넣어 음식을 내놓다보니 더 부담 없이 드시는 것 같다"며 "이 활동을 통해 다문화여성들과의 문화적 차이도 줄이고 색다른 음식을 드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공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마련한 생활나무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서 수강생들이 나무를 이용해 가정소품을 만들고 있다.

“집에서 쓰는 소품 직접 만들어 써요”

완주군 평생교육협, 생활나무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인기

삼례 비비정에 사는 정은경(48)씨는 요즘 매주 화,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목공수업이 열리기 때문이다. 한 주에 두 차례 완주군청 뒤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이 수업은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소품을 만들어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은경씨는 뭔가 배울게 없을까 찾던 중 농어촌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참가해보니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생활소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어 좋더군요.” 그는 원목쟁반을 비롯해 인테리어 선반, 화장품 보관함 등의 생활소품을 수업시간을 통해 만들었다. 은경씨와 함께 생활목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30여 명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은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대표 안연실)가 농어촌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삼례 거주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2016 농촌 교육·문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완주로컬문화체험과 LWC(Life Wood Culture) 생활나무문화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이 프로그램의 두 축으로 상반기엔 로컬문화체험, 하반기에는 LWC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완주로컬문화체험은 삼례중심으로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발굴하고 찾아가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LWC는 기본적인 목공기술을 익혀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소품, 나무장난감 등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 문화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앞서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는 삼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홈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으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공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삼례지역 마을체험 통해 쌈지 바느질공예, 드라이플라워 등을 배웠다.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트리 오현주씨는 “여성들이 평소 경험이나 체험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즐겁다”며 “특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생활소품을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는 2014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지역사회 간 연계해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공

장이경의 삶의 풍경

대복마을 여선희씨





여선희씨가 완주로 이사와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해지는 풍경이다. 이사 초기만 해도 해만 지면 집밖으로 나와 해지는 걸 구경했단다.(왼쪽) 보물1호 호미. (오른쪽) 봉사때 쓰는 미용가위.

해질 무렵 만경강 들판의 풍경은 아름답다. 만경강이 끼고 도는 용진과 봉동, 삼례의 들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산다. 가장 무더웠다는 2016년의 여름이 거짓말처럼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되고 있는 봉동읍 낙평리 대복마을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역시 명불허전이었다. 눈망울이 커다랗고 수줍음 많았던 울산아가씨 여선희(51)씨가 이십여 년 동안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쩌면 저 아름다운 석양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기 이사 와서 제일 좋았던 것은 해지는 것, 그것이 참 좋았어요. 울산 살면서 한 번도 지평선으로 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곳은 산 너머로 해가 지지 땅으로 해가 떨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평선이 딱 펼쳐져서 해만 지면 집에서 나와 해지는 걸 구경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울산여자 완주에 오다

여선희씨의 고향은 울산이다. 자동차 공단이 있던 울산에서 살다 자동차 관련 일을 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완주에 새로운 자동차 공단이 들어서던 즈음에 남편을 따라 아무런 연고도 없던 봉동읍 만경강가에 자리 잡은 이곳 대복마을에 터를 잡았다.

"94년 10월에 남편이 먼저 오고 저희는 다음해 4월에 왔어요. 큰애가 다섯 살 작은 애가 돌 되기 전이었어요. 아들 둘은 초등학교도 다 여기서 다니고 여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이곳으로 온 거죠. 살면서 텃세 같은 것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주 진짜 좋다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 하고 친구들도 자주 놀러 와요."

젊디젊은 울산아가씨에게 처음부터 이 마을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산업도시에서 살다 버스도 잘 안다니고 밤이면 불빛 없이 깜깜해지는 시골마을은 낯설고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아파트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마당 있는 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아 눈 딱 감고 이 집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처음에 이사 와서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저씨가 단독주택을 구했다고 해서 왔더니 무너져 가는 토담집이었거든요. 아궁이에 불 때는 것도 그렇고 마을 어르신들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일 년 반은 힘들게 적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이 180도 달라진 거죠. 이런 삶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포기 반 오기 반으로 산거죠."

포기 반 오기 반으로 벌써 이십년

지금껏 이곳 완주에서 살아온 힘을 포기 반 오기 반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그것을 이곳 삶에 순응하려는 절반의 노력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절반의 도전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이십년 동안의 삶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수많은 부침과 굴곡이 있었겠지만 이십년이 지난 후 지금 여선희씨는 마을에서도 지역에서도 제법 인지도가 높은 '파워우먼'이다.



비봉 빈첸시오요양원에서 미용봉사중인 여선희씨.

"집에만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돌파구로 농촌지도소를 나가기 시작했죠. 교육받으러 다니면서 사람들을 사귀게 된 거죠. 말하자면 사교계에 진출한 거죠. 그때 이미용 교육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영구머리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생기면서 가입해서 체계적으로 봉사교육을 받았고 그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녀의 농사와 봉사활동과 저녁풍경

안하면 불안하고 하고 나면 뿌듯해지는 봉사활동은 중독성이 있다고 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봉동지역을 맡아서 미용봉사, 목욕봉사, 경로당 청소, 농협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어지간한 마을의 어르신들도 그녀를 보면 '지비 왔어' 하고 알아봐주신다고 하니, 처음부터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봉사활동이야말로 그녀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이 지역사회 뿌리내리기의 원동력이었다면 농사는 마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요한 도구였다고 한다. 울산에 살 때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지만 마을 어르신의 소개로 서마지기 논에 나락을 심고부터 지금껏 농사를 이어오며 마을주민들과 한 살이 됐고 마을 부녀회장 일도 6년 동안 했다고 한다.

"농사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커요. 농사 안 지

저 아름다운 석양 때문이었을까…

포기 반 오기 반 … 울산 여순씨의 완주 정착기



을 때는 어르신들과 공통 관심사가 없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벼농사라도 짓고 나서부터는 '아이고 집에 풀이 많이 나더라, 언능 논에 가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어르신들이 참 부지런 하신 것이 새벽 다섯 시면 벌써 다 나와서 일하시고 우리 일어날 시간에 일 끝내고 들어가시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거지. 농사는 간단하고 편한 것이 없더라구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면서 이제 막 배추를 심었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고 배추밭을 다녀오는 그녀의 모습엔 이십대의 아리따운 울산아가씨의 수줍음과 오십대에 접어든 베테랑 농사꾼의 여유로움이 해지는 서쪽하늘의 색조로 담겨 있었다.

"마을 부녀회장을 6년 정도 했어요. 와일드푸드축제에도 참여하고 절임배추로 마을사업도 했죠. 제가 처음에 인수받을 때 통장에 47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이랑 함께 하면서 제가 8백만 원 넘겨주고 나왔어요. 다 주민들이 도와준 덕분이죠."

내가 만약 그녀가 살았던 울산으로 이주해 간다면 나는 그 곳에서 그녀처럼 포기 반 오기 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의 농사와 그녀의 봉사활동과 그녀의 해지는 저녁풍경처럼 내가 그곳에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삶은 허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실제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적응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이우러질 수 있는 것이다. 울산 아줌마 여선희씨는 농사와 봉사활동과 해지는 저녁풍경으로 내게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었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홍홍을 운영한다.



배추밭에 일 마치고 집에 오는 길. 그녀의 오래된 자전거. 자전거 타고 봉동읍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이서 에코르2단지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반 주민들이 전통시조놀이인 화가투놀이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배워서 재능기부까지 … 이웃과 잘 지내니 참 좋아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참여하는 이서 에코르 2단지

'꿈꾸는 에코르' 이름 달고 이웃 교류 활발
전래놀이, 시낭송, 영어회화, 네일아트 배워

"이 바가지 저 바가지 슬금슬금 톱질하세~♬"

"이거 실뜨기 아녀요? 아가씨 때 해본 거라 다 잊어버렸네. 하하"

1일 이서 혁신도시 에코르2단지 내 작은도서관. 10여명의 사람들이 짝을 이뤄 실뜨기를 하고 있다. 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나타난다. 노래를 부르며 하하호호 수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에코르2단지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인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반 학생들이다. 지난 4월 수업을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에 모여 수업을 한다.

완주군은 이웃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활발하다. 에코르2단지도 '꿈꾸는에코르'라는 이름으로 전래놀이 뿐 아니라 시낭송, 영어회화, 네일아트, 작은 영화관 운영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군이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르네상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건너편 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었고 교류도 없었지만,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아파트 풍경이 조금 달라졌다. 이웃을 알게 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어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손주를 등에 업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정안나(60 · 에코르2단지)씨는 "손주가 조금 더 크면 놀아줄 생각으로 전래놀이반에 참여했다"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예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다. 이웃과 교류를 하고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니 참 좋다"고 말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아파트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만 에코르2단지 전래놀이반의 경우, 2단지와 3단지 주민들이 섞여 있다. 옆 아파트 주민들까지 알게 되니 이웃 교류폭이 더 커졌다.

한은주(33 · 에코르3단지)씨는 "완주군에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다. 계속해서 완주군민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라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며 교류를 하면 지금같은 좋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군민으로써 당연히 누리는 혜택이 아닌 주민이 같이 만들어가는 혜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수업 종료를 앞두고 이들은 동아리 모임 형태로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유미례(59 · 에코르3단지)씨는 "우리는 이 수업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른 모임에서도 만나곤 한다. 수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동아리로 지속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꿈꾸는에코르는 더 많은 주민들이 만남을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이희진 꿈꾸는에코르 대표는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에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참여도가 높다. 이 사업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배움을 통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공





이서 에코르2단지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반 주민들이 실뜨기 등을 배우며 즐거워하고 있다.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란?

완주군 민선6기 3대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점차 늘어가는 완주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웃간 화합과 갈등을 입주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모두 5개 분야에서 지원한다. 주민화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연합장터나 캠페인 활동 등을 위한 연합공동체 활동 지원,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과 사랑방 등을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지원, 노후공용시설 및 에너지 절약 시설 등을 지원하는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봉동 렉시안 아파트 '어울림 마당'

요가·목공예·꽃밭가꾸기·음식봉사·작은영화관
다양한 활동하며 이웃간 정 나눠요



봉동 렉시안 아파트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어울림마당'이 문을 열었다.

렉시안 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에 24평 규모로 문을 연 어울림마당은 과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현재 렉시안 아파트는 요가, 목공예 수업, 꽃밭 가꾸기, 어르신 음식 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어울림마당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봉동 렉시안 아파트 어울림마당이 문을 연 것은 단지 내 여러 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이 공간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행복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아파트 르네상스의 대표모델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박재완 도의원, 이향자 완주군의회 부의장, 류영렬 군의원, 이인숙 군의원, 태치옥 입주자대표회장, 하경옥 띵톡 공동체대표, 입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경옥 띵톡 대표

"프로그램 반응 좋아 주민들 줄 섰어요"

"이웃들과 함께 활기차고 즐거운 아파트 생활 꾸려나가요."

봉동읍 렉시안 아파트는 올해 6월 처음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많은 아파트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다. 렉시안 아파트 주민들은 '띵톡'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이들은 공용시설물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지난 8월17일 문을 연 어울림마당도 그 일환이다.

하경옥(55) 띵톡 대표는 "띵톡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며 "초반에는 화단 가꾸기를 하며 이웃과의 교류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경로당에서 요가를 시작했는데 다들 많이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모든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다보니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다고.

하 대표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 참여도도 높고 반응도 좋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이웃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어울림마당을 이웃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

무더위도 날려버린 두억마을 전통문화체험

전북대 외국인 학생 두억마을 방문



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에 올랐던 7월 27일과 8월 9일 2회에 걸쳐 200여 명의 전북대 외국인 학생들이 두억마을을 찾았다.

농협여행(NH여행)에서 제안하고 두억마을에서 프로그램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은 국적이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모로코 등 다양한 곳에서 온 학생들이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호패 만들기 및 과거시험 체험, 두억마을 로고가 그려진 연종이로 가오리연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지도사와 함께 하는 전통놀이 체험, 봉서농원 농가레스토랑의 시골밥상 체험, 주말 농장 및 야생화 체험장 둘러보기 등이다.

옛 선비 옷도 입어보고, 왕 옷도 입어보고, 과거 급제 의상도 입어보면서 즐거워하였고, 가오리연을 직접 만들어 날려보기도 하였다. 특히 전통놀이는 서비스로 넣어드렸었는데 더욱 인기가 좋았다. 협동제기를 차면서 협동심도 기르고, 긴 줄넘기도 그 더위에 함박웃음 터뜨리며 즐겁게 했다. 오재미 던지기, 고누놀이도 인기가 좋았다. 더위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더운데 그들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냥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또 한 가지 그 친구들은 나와 눈만 마주치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끝나고 친구들이 갈 때에도 문지기가 되어 계속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인사를 해야 할 만큼 긍정적이고 친절한 친구들이어서 반대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

농협여행 담당자는 더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다음엔 다른 대학들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씀하셨다. 몸은 힘들었지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를 하면서 정말 뜻 깊고 자랑하고 싶은 점은 체험을 진행할 마을 주민들의 참여(진행 인원이 7명, 식사준비 2명)와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이 이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마을기자(용진 두억마을 사무장)



이현주 사무장의 마을풍경

경천면 36살 된장남을 아시나요?



경천면 경천애인권역 인근에는 작은 카페 '메주콩 커피콩'이 있다. 이름이 왜 '메주콩 커피콩'인가 물어보니 이곳 사장님이 메주로 된장도 만들고 커피도 판다는 것이다. 같은 콩으로 불리지만 어울릴 듯 안 어울릴 듯한 조합이다.

이곳 사장 김성환씨는 30대 중반으로 전혀 된장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어떻게 된장을 만들게 됐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 발전 시키고자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 우리 문화 중 식문화는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학도 전통음식학과를 전공했고, 특히 발효식품에 관심이 많아 전통술, 전통장류, 발효식초, 산야초발효액에 관해 공부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단다.

성환씨는 "많은 발효식품 중에서도 전통장에 매력을 느껴 2009년에 본격적으로 진안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라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저는 수익보다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식생활이 무너지고,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를 찾다보니 건강도 무너지게 됐다. 과학은 발전하고 의료도 발전하는데 거꾸로 환자는 더 많아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전통 식문화를 이어감과 동시에 발효식품을 통해 국민 건강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지금의 일을 하게 된 성환씨. 그는 현재 전통 장류의 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성환씨는 "현재 전통 장류는 할머니 · 어머니 세대가 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하우들을 전해줄 계승자가 없다는 것은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오는 걸 힘들어 하고 어렵게 생각해 그들의 자식들 또한 계승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우리 문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필요성으로 오늘도 힘을 내는 된장남 성환씨. 된장처럼 깊은 맛을 내는 자부심을 응원한다.

/이현주 마을기자(운주 완창마을 사무장)



완주할매들의 인생 손글씨

할미칼라피 7

이예순의 글씨 이야기

이예순은

운주면 안심마을에 사는 이예순 할머니(78). 생애 반세기를 서울에서 보내고 15년 전, 운주면으로 내려왔다. 본래 고향은 충남 연산. 고향 근처에 물길을 찾다 고개넘어 있는 운주에 오게 되었고 안심이라는 마을 이름이 좋아서 정착했다.

나는 한글교실 다니는 '완창리 대학생'

우리 할아버지(남편)가 그래요. 당신은 그 전에 공부했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 됐을거야.
우리 막내딸이 지금 마흔 여덟인데 우리 딸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대, 싫지가 않고.
밤을 새드락 해도 재밌대. 책 읽고 그러는 게.
엄마 탁했는지 내가 걔를 탁했는지 모르겠는데(웃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한글교실에 다니게 된 건 아니었어요.
여기 와서 소일거리를 찾다가 꾸준히 뭔가를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안 그럼 맨날 집에 혼자 늘어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글교실이 있다고 해서 다니게 됐는데 참 좋아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다음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처음 완주에 왔을 땐 들뜬 느낌이 있었어요, 이방인처럼.
근데 이제는 여기에 있어야 안정이 돼요.



깨 밭에 나간 할아버지를 위한 점심을 준비하는 이예순 할머니.
할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주방 싱크대 위로 낸 창가 뒤로
붉게 익은 수수가 한들한들 나부낀다.

주방에 난 창에서 보면 수수가 그렇게 예뻐요.
주인을 닮아서 키만 훌쩍 컸는지. 그냥 안 먹어도 보기만 해도 참 예뻐요.
내가 몸이 좀 불편한데 그러고 난 이 후로 우리집 아저씨가 참 다정해졌어.
그 전에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좀 헤펐지. (웃음)
내가 한글교실 다니고 난 뒤로는 짓궂게 나를 두고 '완창리 대학생' 이라고 놀려, 아저씨가.(웃음)
학당 가면 대학교 가냐고 그럼서도 학당 갈 때, 올 때 오토바이로 데리러 와줘.

할매+캘리그라피=한글문해교실을 통해 한글을 익힌 완주 할매들의 솔직담백한 손글씨를 매달 연재합니다.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야경.





옛 농협 비료창고를 재창조한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8월 29일 개관식날 관람객들이 서고를 둘러보고 있다.

10만 장서와 놀다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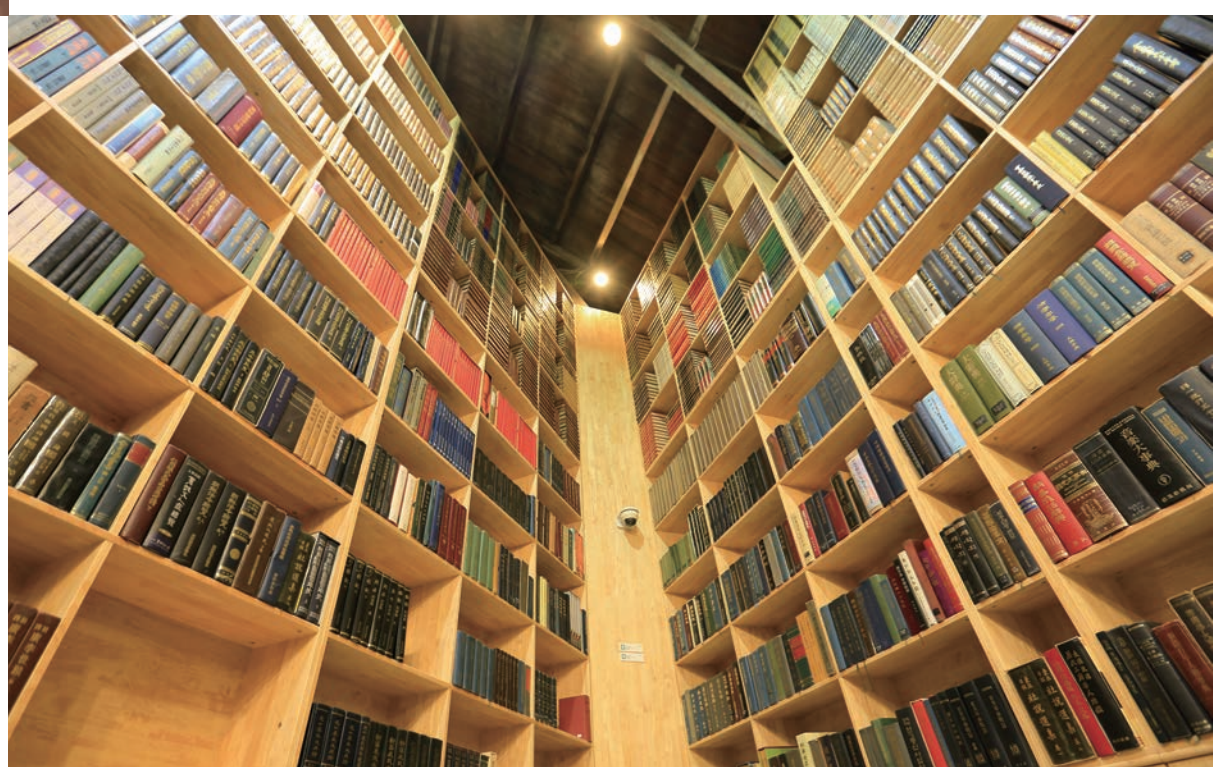


지난달 8월29일 삼례읍에 위치한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삼례책마을 문화센터는 중고서적 10만 권 이상이 비치된 헌책방을 비롯해 독서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북카페, 한국학연구 중심센터인 한국학문헌아카이브, 고서 및 북디자인 관련 전시와 교육 및 강연을 진행할 북 갤러리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벼룩시장, 북페스티벌, 북페어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새로운 책 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책'을 테마로 지역주민, 관광객, 전문가 등이 서로 소통하는 책 문화 허브공간을 구축해 새로운 책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례책마을 문화센터는 지난 2014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10만권의 장서를 수집, 주민참여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사각지대(?) 비봉면 대치리



이승철 향토사학자가 들려주는 완주이야기 (27)



비봉면 대치리.

주민들 듣기에 좀 서운할지 모르나 이 글은 외부 사람을 향해 쓴다. 마을 과 골짜기는 좋으나 그 곳 주민은 그러려니 하고 보통 시하며, 외부 사람은 진가를 몰라 입을 다물었다.

비봉면에서 조차 '대치리' 설명이 시원치 않고 가까운 화산면은 타면이라 알려하지 않는다. 주민은 겸손해 이러거나 저러거나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지나는 이는 길 따라 휙 스칠 뿐이다. 다행이 길가에 소문난 물[水]이 나와 오가다 받아 마시며 물맛 아는 사람은 물통 여러 개를 가지고 와 가득가득 채워 차에 실어간다.

골짝 논과 밭에는 소 막을 지어 제법 규모가 크며 소 한 마리에 1,000만원이라니 다행이다. 마을 사람에게 쇠똥 냄새 미안하거든 이런 기회에 은혜 갚아 버려라.

비봉면은 ①봉산리 ②소농리 ③내월리 ④백도리 ⑤이전리 ⑥수선리 ⑦대치리 7개리인데 대치리 는 지형과 자리로 보아 '화산면' 생활권에 들어가야 마땅하나 비봉면에서 놓아질 않을 것이다. 걸어 재 넘을 때도 요지부동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포장도로에 통신시설이 편리하니 개편되기 어렵다고 본다.

주민을 위한다면 '대치리' 를 화산면에, 화산면 '운제리' 는 경천면에 붙이면 그런대로 좋을 것이나 이것저것 어려우면 차라리 경천면을 화산면에, 비봉면은 고산면에 합해도 무난할 것이다(헌법 개정에 기대).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야 한다. 이곳 초등학교 문 닫은 지 오래이다.

이 마을 외부에 알려질 기회가 적었으니 화두에 올려놓자는 충정에서 이 글을 쓴다. 산시(山柿), 대상(大上), 대흥(大興), 선동(仙洞) 이름값만 수억 원이다. 주민에게 위로와 희망 넘치는 명당이 '선인무수혈(仙人舞袖穴)'. 이 자리가 개인이나 특정 집안만의 영광이 아니라 대치리 전체의 복지이기 바란다.

지금 살거나 객지에 나간이나 모두 선인처럼 옷소매 너울너울 춤사위 예쁘게 춤추며 살기 바란다. 화산면에 편입돼도 춤 출 일, 대치초등학교 출신 거물 나와도 춤 출 일이다. 오래 전 장지로 문상 가니 망인 동생 '우리 형 저금통장에만 3억 원이 있다' 귀띔해 주더라.

대치리는 죽은 부자가 묻히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제 큰 재 깎여 사라졌으니 '대치(大峙)' 가 아니라 '소치(小峙)' 이다. 기피고 땅값 팍팍 올려 부자 되어라. '산시' 에 송씨 장군 산소가 있어 '산시' 라면 그 묘를 아는가.

마치며 한 마디 여산 익산에서 목숨 살리려고 대치 지나간 사람이 많다. 〈선여인 청주한씨 정자 효열비〉 앞에서 한 판 벌려 보자. 가난을 부(富)로 '대치(代置)', '대치(大熾)' 시킬 대치(大峙) 인물이 누군가? 허리 펴고 웃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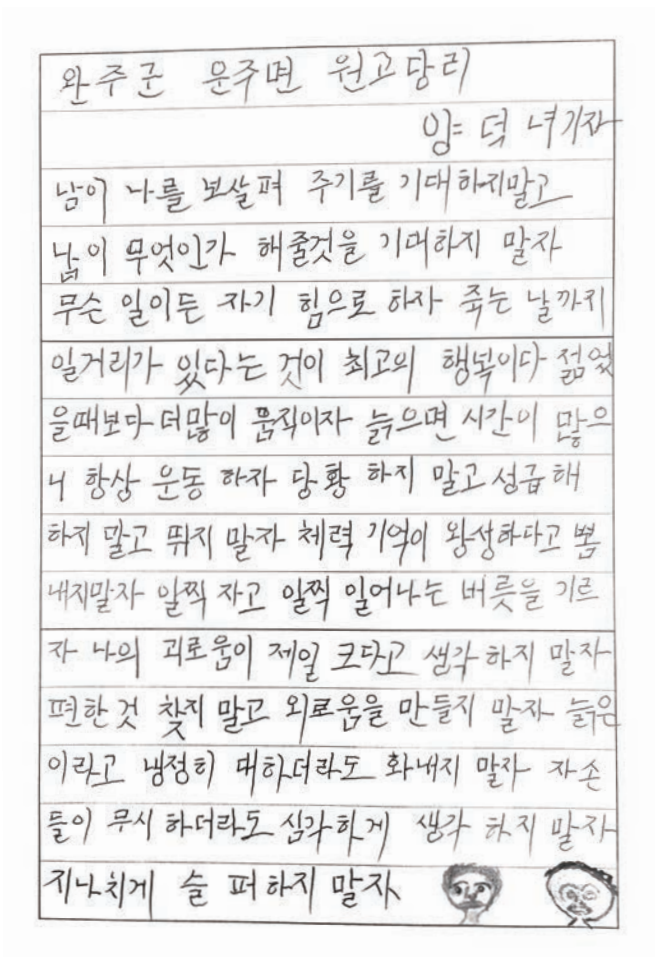
/국사편찬위 史料조사위원(esc2691@naver.com) ·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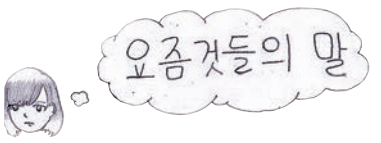


완두콩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양덕녀 할머니의 나도 기자다

※완두콩 크라우드펀딩은 동그라미재단이 지원하는 제1기 로컬챌린지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입니다.





펫팸족

키덜트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 와 어른을 의미하는 '어덜트' 의 합성어로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 을 지칭한다.

펫팸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펫' 과 '패밀리' 라는 단어를 합친 말이다.



팩트폭력
'팩트' 는 '사실' 이라는 뜻으로 있는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의문의 1패
의도가 없었는데 본의아니게 누군가를 디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수능금지곡
공부가 방해 될 정도로 중독성이 너무 강해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이 들어선 안되는 곡이라는 뜻이다.

이 글은 '시간을 잡는 소녀(줄여서 시잡소)' 라는 잡지를 만든 고산고등학교 학생(권오영, 심소희, 임예빈, 문은혜) 4명이 기획하고 작성한 은어풀이 사전입니다.

완주여행 시작과 끝은 기차역



⑦ 여행소개 旅行紹介



나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완주 여행의 시작과 끝은 기차역이다. 나는 봉동 읍내 쪽에 산다. 버스를 타고 전주나 봉동, 삼례, 왕궁 등 여러 장소로 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행에 기차 타는 재미를 빼면 서운하니 웬만하면 기차여행을 추천한다. 전주역에서 시작해 삼례역으로 끝나는 1박 2일 주말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자가용이 없다면 차를 빌려야 편하다. 아무래도 시골은 도시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버스 시간에 맞춰 움직이려고 하면 제대로 된 관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에서 오는 길에 용진 아줌마국수나 시골집국수에 들르자. 아줌마국수는 비빔국수와 물국수 단 두 가지 메뉴만 팔고 국물맛이 끝내준다. 건너편 시골집국수에서는 국수 외에 도토리묵밥, 시래기국밥도 판다. 나는 묵밥을 좋아하지만 손님 취향에 따라, 게으름과 배고픔 정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시골집국수를 갈 경우에는 길을 건너야하니까)

국수집이 완주의 정겨움을 담당한다면 다음은 세련미를 뽐낼 차례. 삼일월 빵집에 들러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베이커리를 맛보자. 시골집국수 옆, 아줌마국수 앞 신호등을 건너 바로다. 나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바삭한 과자 러스크나 달콤하고 촉촉한 무화과 호밀빵을 좋아한다. 수줍은듯 조용조용 부산말로 이야기하는 훈남 사장님도 관광포인트. 다른 빵들도 싸고 맛있다.

길을 건너는 게 귀찮은 사람들도 걱정 말자. 국수집 선택지가 두 개이듯 젊은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반짝이는 가게의 선택지도 둘이다. 경찰서 옆 커피콩 카페에서는 각종 음료와 아이스크림과 디저트를 판다. 이 가게는 웃는 모습이 맑고 예쁜 봉동 출신 여사장님이 운영한다.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도 관광코스다. 생산자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소개하면 도시 것들이 신기해한다. 완주군민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념품이나 선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자. 지역에서 제대로 만든 차나 술, 청 등 가공식품은 어쨌든 좋은 선물이다.

먼 길 달려오느라 피곤한 친구님들을 모시고 우선 숙소(=내 집)에 체크인을 하자. 짐을 풀고 몸을 누이면 다시 일어서기 싫어질 테니 작정하고 오늘은 집에서 통닭이나 시켜먹으면서 여행의 시작을 기념한다. (비록 오늘이 첫날이자 마지막 날 밤이지만) 꼬꼬치킨, 뽀빠이통닭, 맛꼬방, 비비큐, 교촌, 멕시칸, 피자나라 치킨공주, 디디치킨, BHC 등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알아서 주문하시길. 방금 국수를 먹고 왔다고 못 먹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자. 치킨은 배부를 때 먹기 시작해야 제 맛. 먹기 전부터 배불러서 언제 멈춰야 할 지 알 수 없는 기분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둘째날이 밝았다. 여름엔 동상이나 고산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면 좋겠지만 내년 여름을 기약하기로 하고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는 경천 화암사나 상관 편백나무숲에 가보자. 단정한 절에서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화암사를, 숲 한가운데서 충만함을 느끼고 싶다면 상관 편백나무숲으로 가자. 화암사는 아무래도 산길을 좀 걸어야 한다. 두 군데 다 신선한 공기와 하늘, 산이나 숲의 푸르름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편백나무 숲에서는 숲속 벤치에 드러누워 늘어지게 낮잠을 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책을 마치고 나서 다음 일정은 식사. 삼례 비비정 농가레스토랑에서 정갈한 밥상을 받고 언덕 위 비비낙안 카페에서 만경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면 여행은 끝난다. 삼례역에서 기차타고 안녕히 돌아가세요. 맛있고, 아름답고, 건강한 1박 2일이었다.

글쓴이 **바닥(badac) 이보현**은 새내기 귀촌인이자 완주의 직장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줍거나 얻어) 쓰는 자급생활을 지향한다.

"완주서도 사과농사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비봉서 사과농사 유희찬씨



유희찬씨는 비봉에서도 사과농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2일 천호성지 근처 마을 사과밭에서 만난 구릿빛 얼굴의 유씨는 다소 상기된 모습이었다.

"로컬푸드에 사과를 내고 서둘러 왔는데 좀 늦었네요. 작년에 처음 출하를 했을 땐 인건비도 못 건졌어요. 올해는 출하량이 늘어 기운도 나고 재미있네요."

완주에서 사과농사는 불가능 가까운 도전이었다. 그의 사과농사는 환영받지 못했고 대부분 안 된다고 말했다. 희찬씨는 모두가 말리는 사과농사를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 "본래 감 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태풍 볼라밴에 모두 날아갔죠. 무슨 작물을 해야 하나 고민 하다 사과를 해보기로 했지만 만만치 않았어요."

특별한 계획이나 확신도 없었다. 뚝심만 믿고 무작정 시작한 일이었다. "사과의 사자도 몰랐어요. 공부가 필요했죠. 사과를 배우기 위해 장수, 예산 등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결론은 완주는 지리적으로 사과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희찬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풀코스만도 100회 이상 뛰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포기할 줄 모르거든요."

희찬씨는 수소문 끝에 예산에서 사과묘목을 구할 수 있었다. 1400여 평에 살이 단단한 자홍과 후지를 심었다. 그게 5년 전이다.

"나무는 하늘로 향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인데 하늘로 향하는 나무에 달린 사과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지난해까지는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무지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배우고 또 배웠죠. 추를 매달아 나무가 옆으로 퍼지도록 했어요."

그의 사과농장은 해발 200미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사과농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저는 그걸 극복하고 싶었어요. 장수 같은 고랭지보다 색깔이 나지도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완주에서도 사과농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죠."

올해 예상수확량은 5톤이다. 작년에는 2톤이었다. 당도는 15브릭스에서 최고 16브릭스까지 나온다. 대개의 사과가 14브릭스 정도 나온다고 한다. 직거래와 완주로컬푸드 직매장에서만 희찬씨의 사과를 만날 수 있다. 요즘 시세로 10kg에 작은 것은 4만원 선, 큰 것은 6~7만원이다. 완주에는 유희찬씨를 비롯해 10여 농가가 사과재배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풍년을 걱정하고 울상 짓는 농부

농/촌/별/곡



차 남 호

애타게 기다리던 가을이 오셨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무더위'가 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물러난 다음이다. 누구는 "한여름에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가을이더라"고 했다. 원래 가을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번엔 그보다는 여름이 가버린 게 더 반가운 게다.

어쨌거나 가을. 곧장 '결실의 계절'이 따라 붙는다. 가을걷이를 상징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황금들녘'.

빛깔이 바뀌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들녘에는 지금 고개를 푹 수긴 벼이삭이 넘실댄다. 올해도 다들 '대풍'을 내다보고 있다. 그 앞에 '슈퍼'를 붙이는 이도 있다. 이변이 없다면 내리 4년 풍작인 셈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걱정이 한 가득이다.

풍년을 걱정하고, 울상을 짓는 농부라니. 정말 이상한 나라 아닌가. 엊그제는 전라남도 농민들이 올해 거둬들인 조생종 나락 20톤을 도청 앞에 20톤을 쏟아버리며 쌀값폭락에 울분을 토했다. 그 동안엔 '나락 가마 적재투쟁'이었다. 농민의 노여움도 그만큼 격해졌다는 얘기다.

나락 값이 3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쌀값은 농민의 봉급이다. 내가 30년 전 현장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받은 월급이 대략 15만원(일당 5천5백원)이었다. 지금 봉급쟁이더러 월급 15만원을 주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세상이 뒤집히는 난리가 났을 거다.

'풍년의 역설'이라는 말로 때우기에는 사정이 너무 절박하다. 게다가 한 두 해도 아니고 벌써 4년째인데, 정부는 여적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그만 두고 "과잉생산이 문제"라며 되레 농민을 탓하고 있다. 한 마디로 '벼농사 짓지 마라'가 대책이다. 실제로 '논 타작물 전환'이란 방침을 세워 반강제로 밀어붙였다. 식량자급률 20%대에, 주식인 쌀마저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대체 뭐가 '과잉'이란 말인가.

지금 김재수라는 사람이 여론을 달구고 있는 모양이다. 농림부장관에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결국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소식이다. 1% 저리 특혜대출에, '황제 전세'에, 어머니 의료비 특혜 따위 의혹이 줄줄이 불거졌다고 한다. 장관 쯤 해먹으려면 이 정도 비리는 필수요건이 된 지 오래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가 오랜 농업 관료생활을 거치면서 개방농정, 농업홀대 정책을 이끌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5년 동안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지냈는데, 유통공사는 그 동안 농산물 값이 조금만 올라도 발 빠르게 해외농산물을 들여와 가격폭락을 부채질해왔던 곳이다. 쌀값 폭락을 부른 직접원인인 밥쌀수입 또한 유통공사 작품이다.

하긴 농림부장관 따위의 '피라미'가 무슨 죄가 있으랴. '시장근본주의'를 앞세워온 역대 정권 아래서 농업부처는 경제부처의 '파견대'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정책 기조는 물론 거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었고, 농업부처는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농업과 농민을 '통제'하는 구실을 해왔던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결코 농민을 위해 만든 부처가 아니라는 거.

넉넉하게 일렁이는 들녘을 보고 있자니 다시 심란해진다. 또 한 해를 창고에 가득 쌓인 나락을 어찌 처분할지 애태울 생각에.

그러나 정치가 농민을 속일지라도 진짜 농부는 농사를 그만 두지 않는다. 비록 실낱같지만, 내일은 해가 뜨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찰박찰박 걸어갈 것이다. 위기에 닥친 식량주권을 되찾고, 건강한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야 말로 세상을 이롭게 할 농부의 길 아니겠나. 우리는 다시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들녘에서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판을 벌일 것이다. 풍년아, 너는 죄가 없다.

/고산 어우리 사는 귀농인

마을소식

구이 안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국무총리상

완주군은 시군분야 장관상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수상했다. 마을소득체험분야에서는 구이면 안덕마을이 국무총리상을, 시군분야 중에서는 완주군이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이면 안덕마을 발표자 유영배 위원장은 모악산 산기슭에 자리 잡은 안덕마을이 한 해 약 6만5천여명 방문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유명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주민들의 퍼포먼스와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큰 관심을 모았다.

또 완주군은 이날 발표를 통해 마을회사, 로컬푸드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아파트 및 지역창업공동체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수상으로 완주군은 상패와 5백만원의 시상금을, 은상을 수상한 구이 안덕마을은 상패와 2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콘테스트에서 완주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그동안 농토피아 완주를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완주 마을이야기 Wandookong
완주 CB공동체

발 행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
편 집 인 이용규 인쇄인 강순조
주 소 (565-864)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대표전화 063-291-8448 이메일 toktok1942@hanmail.net

등록번호 완주,라00002 / 구독료 월 3,000원
독자 기고 및 제보 010-8704-3464 editor2001@hanmail.net



옥탑방 있는 주택팝니다

완주군 경천면 원용복길 3 농협앞. 벽돌구조로 대지면적은 118평, 건평 27평에 옥탑방(7평)도 있어요. 문의 010-6540-1863

소양 황운리에 공공주택 들어선다

완주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80호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군은 올해 말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7년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2019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16 공동체교류특강

구성애님과 함께하는 지적장애인 성(性)이야기

일시 : 2016.9.9.금.오후1시

장소 : 지역경제순환센터 1층

주최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주관 다정다감협동조합

후원 깔깔깔인형극단, 완두콩협동조합, 마더쿠키영농조합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가

이웃사랑 나눔빨래터를 운영합니다



[문의]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 227-6090